



운영과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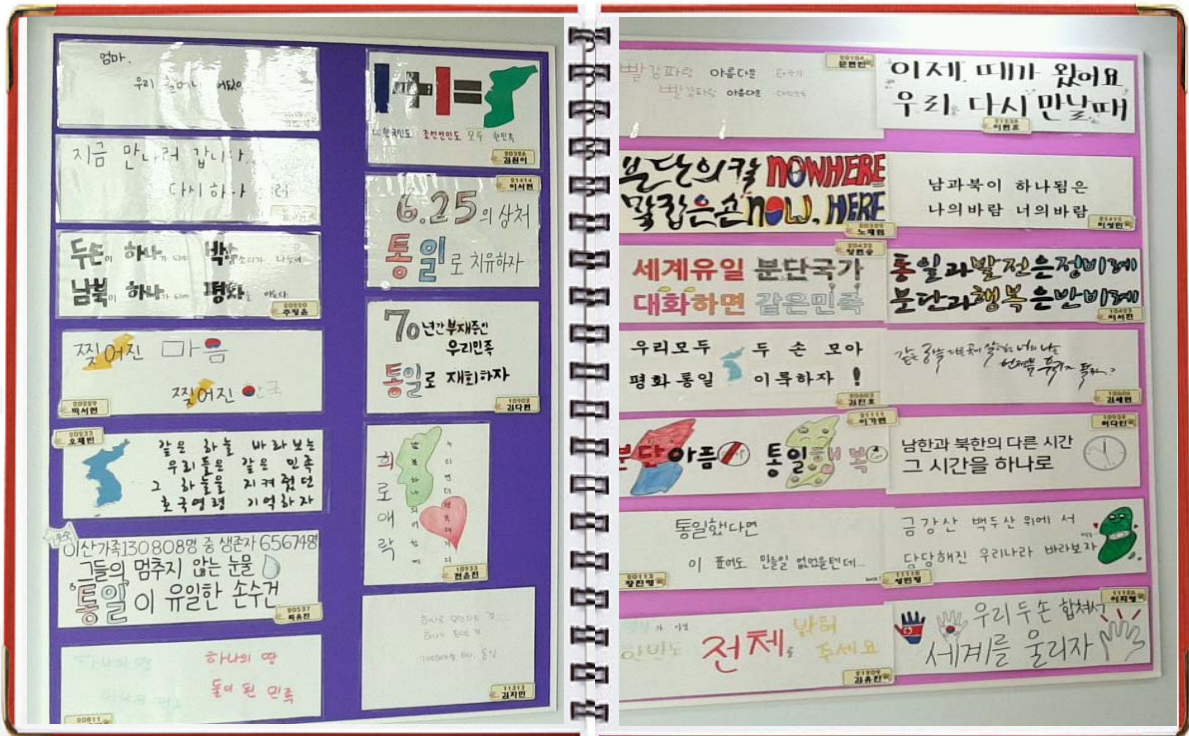
평화통일 실현 의식 함양을 위한 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

1. 자기주도 참여 중심 프로그램 운영
2. 학생동아리를 통한 체험 중심 프로그램 운영
3. 교실의 벽을 넘어 세바람 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

1 자기주도 참여를 유도하는 ‘참여중심 대회’ 운영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통일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대회에 참여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거부감을 해소하고 미래지향적 건전한 통일실현의식을 함양하도록 다양한 분야의 통일관련 대회를 운영하였다. 대회 참여와 수상작 게시(교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 공동체의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였다. 교내 원 코리아(one korea) 갤러리는 문예 분야, 사회과학 분야, UCC 분야, 포스터 및 캐릭터 분야, 동영상감상평 분야 등 5개 분야의 작품을 수합하여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많은 학생이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작품들을 게시함으로써 통일 감수성을 갖게 통일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참여 중심 교내 대회	운영 내용	분야
교내 통일 포어 대회	미래지향적 건전한 통일실현 의식, 통일감수성, 통일 의지 등 통일소재를 가지고 다양하게 표현한 작품 제출·시상·게시	전체
교내 원 코리아 갤러리 대회		



통일 포어 대회 작품들



◆ 문예 분야 학생 작품

그림

10418 신정하

새하얀 도화지에
보기 싫게 그어진 선 하나에
내가 울었다
네가 울었다
사람들이 울었다
모두가 울었다

하지만
이내 소매로 눈물을 속속 닦고
서로의 손을 꼭 붙잡았다
고무같이 질긴 마음 하나하나 모아 지우개 만들어서,
짙은 선을 말끔히 지워냈다
겹쳐 잡은 손으로 붓을 그리쥐고는
새로운 선을 그려나갔다
서로 다른 색깔을
지우지 않고
섞어서
알록달록 색깔을 입혀나갔다

아,
그토록 우리가 바라던 그림
그토록 우리가 그리던 통일

오래된 연인

11213-박다운

서로가 불안했던 초여름의 어느 날
우리는 크게 다투었다

수많은 눈물을 흘리고
수많은 상처를 품에 새기며
결국 뒤돌아섰다

서로를 외면한 채 계절이 돌고 돌아
당신이 많이 그리워 질 쯤,
우리 다시 화해할 수 있을까
쭈뼛쭈뼛 손을 내밀어 보았지만
한 번 떨어진 거리는 쉬이 좁혀지지 않았다

당신과 함께 다시 걷고 싶다
같은 곳을 바라보고 싶다
손까지 낀 채 나란히,
떠오르는 아침을 바라보며
당신과 함께 웃음 짓고 싶다

소중한 끈

20404 김서연

우리는 사소한 이익 때문에
큰 그림을 놓치고 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놓치고 있다.

우리는 걱정과 불안에 가득차 있기 때문에
정말로 걱정해야 할 문제를 놓치고 있다.

우리는 개인의 불편함 때문에
1중에 닥쳐올 큰 불편함을 놓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사소한 것들로 인해
가 놓치고 있다.

우리는 운동화 끈보다 더 가치 있는 남북한을
이어줄
소중한 끈을 놓치지 말고 잘 묶어야 한다

우리는 소중한 끈을 묶고 나면 우리가 원했던
이상의
꿈들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꿈

20415 신정원

꿈을 꾸었다
삼팔도선 너머에 있는
사랑하는 그리운 가족들과 만나
서로 부둥켜안고 울며 행복해하는 꿈
다시 꾸고 싶은 꿈

또 꿈을 꾸었다
탕탕-탕탕-
사람들이 피 흘리며 죽어나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해야만 했던
그날의 모습이 담긴 꿈
다신 꾸기 싫은 꿈

꿈에서 깬다
6.25때 남은 총알 자국보다
죽음을 보며 받은 정신적 충격보다
사랑하는 누나, 사랑하는 동생
사랑하는 어머니.....
같은 하늘 아래 있으면서도 그들을 보지 못하는
엄청난 고통이 나를 괴롭게 한다
70년이 더 되도록 만나지 못하는 지옥 같은 현실
내게 지어주시던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조차
다신 볼 수 없는 건 아닐까...

그러다 문득
내 머릿속을 스친 생각 하나
깨진 도자기를 온전하게 되돌릴 수는 없어도
조각조각 모아 정성껏 붙인다면
조각들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것처럼
두 조각으로 갈라진 조국도 언젠가는
하나로 뭉칠 수 있지 않을까

꿈이 생겼다
베를린 장벽 너머에 있던
사랑하는 가족들과 만난
독일 사람들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환희에 찬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날이 오길

손끝

11136 최주희

망설이지 말고 손을 뻗어라
한번 편 손끝은,
다시는 접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펴진 손 위로
나뉘지는 온기는
시린 삼팔선 위로,

아픈만큼 더 시린,
서늘한 찬기를
뒹어줄테니

심호흡 한번, 내쉬는 숨결 사이로
사무치는 진득한 아픔은,
그들의 것이 아닌 우리의
것이어야만 하고

한 날 들려오는 플루트 선율
그 위에 앉아 그네를 타는,
그런 기쁨,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이어야만 하니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손을 뻗어라

우리 손을 마주잡고,
두 팔을 벌려라

손 끝에서 손바닥,
손바닥에서,
가슴까지,
타오르는 찬란한 기쁨에
박수칠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오늘



강

11104 김민서

별 이유 없이 크게 다툼 날,
우리는 서로의 가슴 한 켠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금방 멎을 줄 알았던 피가
계속해서 흘렀습니다.
그 아픔에,
두려움에,
우리는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핏물과 눈물은 모여
우리 사이에
깊은 강을 만들었고,
그 강은 우리를 서서히 갈라 놓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강은 점점 알아졌고
우리는 서로를
그리워했습니다.
흉이 진 가슴 한 켠은
그대를 보고 싶은 마음에,
여전히 육신거렸습니다.

또다시,
시간이 흘러,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은
지금 우리 사이의 강은
여전히 얇지만,
끊임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였다는 사실을 잊은 채로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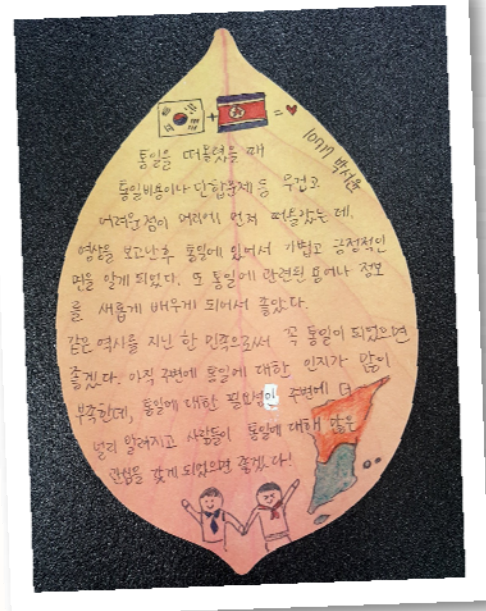


2 상설 통일교육존(Zone)을 활용한 ‘포스트 잇 통일 한반도’ 게시

통일을 향한 교육공동체의 염원을 담은 내용과 통일 동영상 감상평을 기록하여 부착할 수 있는 자율공간을 제공하였다. 통일에 대한 무관심을 깨고 통일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였다. 교육공동체에게 수시로 노출되어 자연스러운 통일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통일교육의 넋지 효과를 추구하였다.

Tips 운영상 고려할 사항

1. 통일관련 대회는 매년 실시했지만 좀 더 다양한 분야로 나누어 실시했더니 학생들은 분산되었으나 좀 더 홍보를 하되 과하지 않게 하면 좋을 것 같다.
2. 원 코리아 갤러리는 문예 분야, 사회과학 분야, UCC 분야, 포스터 및 캐릭터 분야, 동영상감상평 분야 등 5개 분야로 실시하였다. 분야별 담당 교사를 두어 작품을 수합하고 우수작을 선정하였고 다른 행정업무는 연구부에서 담당하였다.
3. 담임선생님을 통해 참가학생을 선발하면 담임선생님께서는 부담스럽긴 하지만 통일에 관심이 있는 성실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4. 통일 관련 대회 운영 절차
 - 1) 대회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결재를 올린다.
 - 2) 학생 안내문을 작성하여 담임선생님의 협조로 학급에 안내한다. 안내문은 학급함에 넣고 담임선생님에게 쿨 메신저로 안내한다.
 - 3) 신청 학생을 모집하고 담당 선생님이 작품을 수합한다.
 - 4) 우수 작품을 선정하고 시상학생명단 결재를 올린다.
 - 5) 상장 문구를 작성하고 상장을 제작한다.
 - 6) 수상학생들을 교장실에서 시상한다.
 - 7) 학교생활기록부 기록내용을 작성하고 결재를 올린다.
 - 8) 담임선생님을 통해 학교생활기록부에 작성한다.
 - 9) 사진을 찍고 자료집에 올린다.





3

1박 2일 통일 리더 캠프

	주요 내용
프로그램명	2016 통일리더캠프(국내) 통일교육주간 특별캠프
일시(기간)	2016. 5. 21(토)~ 5. 22(일)/ 1박2일
장소	연천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인원	100명 (초중고, 대학생 각 25명정도)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감+재미+의미+자율형 참가 • 청소년 수준에 적합한 눈높이 통일교육 • 일방적 강의 형식을 탈피한 자기 주도적 통일교육 계기 마련 • 통일한국을 이끌어갈 미래리더 양성
특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비 무료(숙식 제공) • 30명 이상일 경우 학교에서 버스로 출발(무료) • 참가자 전원 수료증 수여, 벽화그리기 참여자 봉사시간 4시간 인정
주관	통일부 통일교육원

■ 참가 프로그램

구분	5/21(토) - 1일차	5/22(일) - 2일차
오전	10:00 집결 등록(서울역→한반도통일미래센터)	08:00 조식
	11:30 입소식/안전교육	08:40 이동(한반도통일미래센터→통일교육원)
오후	12:00 중식	10:00 통일벽화 그리기1 (통일교육원 인근)
	13:00 통일빛장열기	12:00 중식(통일교육원)
	14:00 통일송 컵타페스티발, 통일 특강	13:00 통일벽화 그리기2 (장관님 참석 예정)
	16:00 한반도체험관1/너와나의연결고리	15:00 귀가(서울역 도착 후 해산) (단체차량은 학교로 이동 후 해산)
	16:45 한반도체험관2/너와나의연결고리	
	17:30 석식	
	18:30 통일송 뮤직비디오만들기	
21:00 취침		



Tips 운영상 고려할 사항

1. 참여 학생이 35명이어서 단체버스차량을 이용하였다.
2. 동행교사는 1명이었는데 최소 2명의 교사가 동행하면 좋을 것 같다.
3. 참가학생을 선발할 때 번거롭지만 담임선생님을 통해 선발하면 성실하고 진지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겠다.
4. 벽화 그리기는 의미 있는 봉사활동이었지만 5월달이었는데도 그늘이 없어서 그런지 굉장히 더웠다. 학생들이 더위에 지칠까 가장 큰 염려가 되었다.
5. 1박 2일이었기 때문에 학생 간식을 넉넉히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통일 빗장열기



통일송 컴타페스티벌, 통일 특강



통일리더캠프 참가학생들



참가학생들 줌-인(zoom-in)



통일부 장관님과 학생들



벽화 그리느라 고생한 후 기념 사진



한반도 체험관



한반도 체험관/통일부 장관과 벽화그리기



4 공공성 증진과 통일교육 학술대회

주요 내용	
프로그램명	2016 공공성 증진을 위한 보훈선양 학술대회
일시(기간)	2016.5.27.13:00~17:00(4시간)
장소	국회의원 회관
인원	27명(2학년 23명, 1학년 4명)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성 증진에 대한 이해 • 4.19 정신과 통일과의 관계 심층 이해 • 발제 교수들에게 통일관련 질의응답을 통해 전문가 의견 교환
특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비 무료 • 국회의원 회관에서 교수들 발표자들과 함께 중앙 테이블에 착석 • 학술대회 이후 평가회
주관	한국공공사회학회



Tips 운영상 고려할 사항

1. 학술대회에 신청학생이 너무 많아 진로희망을 간단히 받아 통일, 사회, 정치 등의 분야로 진학할 학생들을 먼저 선발하였다.
2. 4시간의 학술대회에서 졸지 않고 성실한 자세로 참여할 수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야 했다.
3. 학술대회시 유의사항을 충분히 오리엔테이션 하였다.
 - 1) 필기도구 및 개인 차비, 단정한 교복
 - 2) 학술대회 진행시 휴대폰 무음 유지
 - 3) 국회의원회관 앞에서 배부 물품 : 간식, 프린트
 - 4) 쉬는 시간에 간식 먹기(발표 중 간식을 먹지 않도록 유의. 음료는 괜찮으나 소리 내며 먹지 않도록 유의)
 - 5) 질문 시 손을 들고 사회자의 지명을 받으면 “신목고등학교 00학년 000입니다. 발표자님의 000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압축 인사). ~(질문)000에 대해서..~”





1) 공공성 증진을 위한 보훈선양 학술대회 참가 후기

2016년 5월 27일(금)	2학년 4반 27번 이름 : 방서영
1. 주제 발표 내용 정리	
<p>이번 학술대회의 전체적인 흐름은 보훈선양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국가 보훈제도에 대한 헌법적 고찰과 주요 OECD 국가들의 보훈선양의식을 분석과 한국전쟁, 4·19시민혁명, 5·18정신과 관련된 보훈, 안보위협 상황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내용 등을 여러 교수님들의 강연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었다. 교수님들의 강연을 들으면서 현 보훈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생각해볼 수 있었고, 보훈제도의 혜택을 받기위해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과 현 보훈제도에서 정책의 사각지대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해결방안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좀 더 구체화 하고 국민의 정서에 맞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국가 보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민들의 보훈선양의식을 높여 국민적 자부심과 호국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 보훈제도의 문제점 개선도 있지만 국민들의 관심과 반응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보훈선양의식은 한국사회 발전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학생신분인 나는 올바른 한국 역사를 배우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 감사한마음을 가지면서 보훈선양의식을 가져야된다는 생각이 들었다.</p>	
2. 통일과 공공성	
<p>이번 학술대회에 참가하기 전까지는 통일에 관련해서는 비용적인 측면문제를 많이 생각하고 있었고,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과연 통일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학술대회에서 여러 교수님들의 보훈관련 강연을 듣고 특히 '4·19시민혁명과 보훈선양'에 대한 충북대 안성호 교수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4·19 시민혁명에 관한 의의를 다시 한 번 되새겨볼 수 있었고 이에 대한 보훈선양을 통하여 순국선영과 호국영령, 민주화유공자에 대한 교훈이 후손에 전수되고 북한 주민들에게까지 확산된다면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남북통일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통일을 하기 위해 민주주의정신 문제를 과연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북한에 알려야 평화적이면서도 통일에 대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점이 생겨 교수님께 질문을 드렸다. 교수님께서 하루아침에 북한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우리나라가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사례인 개성공단 사례 등을 들어서 자세히 답변해 주셨다. 교수님의 강연을 통해 평화통일을 위한 방안을 민주주의 전파를 통한 북한의 자발적인 민주화혁명 전개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통일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 더 높여보면서 통일은 우리국민 모두의 염원이기 때문에 통일에 점차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란다.</p>	
3. 통일교육에 대한 의견	
<p>청소년 시기에 교육을 받아 형성되는 인식이 앞으로의 삶을 사라는 가치관을 좌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에 평화통일 관련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통일은 전 국민적인 관심과 지지 속에서 진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기초적 토대로 통일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느꼈다. 우리나라의 올바른 역사를 배우고 올바른 가치관 속에 호국의지와 국민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통일에 대한 교육은 청소년에게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으로 전 연령층에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통일을 하는 것과 자신이 살아가는 것과 별개로 생각 하는 것이 아닌 통일관련 문제는 우리의 삶과 관련이 있고, 분단되어있는 우리나라가 통일이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 통일교육, 사회를 대상으로 한 사회 통일교육 모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얼마전 걸그룹의 한 여성이 안중근 의사도 모르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었다. 모두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 의외로 통일에 대한 지식이 우리 국민들에게 부족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고 전 연령층이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통일에 대해 직접 생각해보고 자신의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면 좋겠다. 후에 우리나라와 북한이 평화통일을 하게 되어 민주주의모범국가가 되기를 바라고, 나도 이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p>	



2016년 5월 27일(금)	2학년 7반 19번 이름 : 권예림
1. 주제 발표 내용 정리	
<p>1섹션에서는 주로 국가보훈제도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되었고, 2섹션에서는 한국전쟁, 한국운동과 보훈 사이의 관계에 집중을 하는 구성으로 진행되었다. 김명수 교수님께서서는 결국 엄격한 기준을 정해서 그에 따라 국가유공자들을 판별해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보훈 대상자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셨고, 서운석 연구원님께서서는 대한민국이 다른 국가들과 그들의 상황을 함께 고려했을 때, 국민적 자부심이나 호국 의지 등이 보통이거나 낮은 편으로 나타났고, 군에 대한 신뢰, 민주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생활 만족도, 종교 등이 이러한 수치를 높이는 데 유의미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마지막으로, 김민지 교수님께서서는 안보위협 상황이 국민의 정신건강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재난피해자들을 위한 심리지원센터나 정신건강지원서비스 등과 같은 체계적 시스템이 구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셨다. 2섹션 강대덕 연구소장님께서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을 할때의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셨고, 임상순 선생님께서는 한국전쟁과 관련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안성호 교수님께서서는 4.19 혁명의 정신을 본받아 진정한 민주주의를 추구해야 하며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김기곤 연구원님께서서는 5.18정신의 가치와 의미에 주목해 이를 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p>	
2. 통일과 공공성	
<p>사실 언뜻 들었을 때는 통일과 공공성은 전혀 연결이 안되는 독립적인 분야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학술대회를 듣고 나니 둘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다. 우선 공공성이란, 사회 일반의 여러 사람 혹은 여러 단체에 두루 연관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과 공공성, 그리고 보훈선양 의식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유공제도 혹은 국가보훈제도의 본 목적은 보훈 선양 의식을 높이면서, 민주주의와 같은 한국독립운동이나 한국전쟁, 4.19시민혁명과 같은 여러 혁명들과 사건들의 정신을 교육시키고 본받게 하자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그리고 공공성 증진을 위해 민주주의를 계승하기 위해서는, 통일 또한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다. 결국, 공공성 증진을 위해서는 보훈 선양 의식과 국가 보훈 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공공성 증진을 위한 의식을 본받기 위해서는 통일 또한 필요하다는 점을, 학술대회를 통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다.</p>	
3. 통일교육에 대한 의견	
<p>통일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2섹션의 임상순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셨다. 특히 사람에게 있어서는, 내면에 깊게 박힌 게 오래가기 때문에 특히나 청소년 시기에 교육을 받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교육을 통해 우리나라가 겪어 온 과정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해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면도 설명해 주시면서 현재 중고등 교과서를 분석해보면 결과 국가보훈제도나 보훈선양 의식과 관련된 내용은 적었으며, 내용은 아주 적게 다루었다고 설명하셨다. 나 또한 임상순 선생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꽤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았다. 아직 통일이나 국가보훈제도에 대한 분량 자체가 적은 것 또한 사실이고, 이를 늘려야 하는 것도 맞다. 그러나 나는 통일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더 집중하고 싶다. 우리나라의 교과서를 살펴보면 통일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실 공감이 잘 안 되는 것도 많다. 통일의 중요성은 알겠지만, 왜 굳이 단지 '한민족' 이라는 이유만으로, '원래 한 나라' 였다는 이유만으로 통일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단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더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근거와 자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한민족' 이라는 이유가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단순히 그 이유 때문에 양국이 엄청난 인고의 시간을 겪어내면서까지 통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 뿐이다. 미래의 학생들에게는 좀 더 현실적이고 객관적이며 실질적인 이유들을 더 많이 제시해 주면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교육해주었으면, 하고 바란다.</p>	



2016년 5월 27일(금)	2 학년 7 반 17 번 이름 : 황유선
1. 주제 발표 내용 정리	
<p>이번 학술대회는 크게 1부, 2부로 나뉘었다. 1부에는 김명수 교수님의 “국가보훈제도에 대한 헌법적 고찰”, 서운석 보훈교육연구원님의 “주요 OECD국가들의 보훈선양의식 분석”, 김민지 교수님의 “안보 위협 상황에서의 국민의 정신건강” 발표가 있었고 2부에는 강대덕 화서학연구소장님의 “한국독립운동과 보훈”, 임상순 통일미래사회연구소장님의 “한국전쟁관련 국가보훈실태연구”, 안성호 교수님의 “4·19 시민혁명과 보훈”, 김기곤 전남광주발전연구원님의 “5·18 정신의 의미 확장과 실천의 재구성” 발표가 있었다. 내게 제일 인상적이었던 발표는 김명수 교수님의 발표였다. 김명수 교수님은 사회계약설에 기초한 국가의 의의에서 가장 약한 존재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게 ‘국가’ 라는 장치라고 하셨습니다. 국가가 보훈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주지 않으면 또 다른 국가의 위기가 왔을 때 국가를 위해 행동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없어 국가 운영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빛을 내더라도 보훈대상자들에게 보상해야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이상적인 국가 운영까지는 못되더라도 우리나라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국민들이 국가에 애착을 갖게 하는 정부의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생각했다.</p>	
2. 통일과 공공성	
<p>통일은 본질적으로 당연히 이룩해야 하는 과제라고 한다. 한 민족이 다시 결합하는 일, 그보다 더 당연하고 아름다운 일은 없다. 통일의 본질은 이러하다. 하지만 통일을 외치는 게 과연 이 아름다운 의미를 살리기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다. 남북한 국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북한과 통일했을 때 북한의 무수한 지하자원을 취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때문인지를 잘 따져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통일은 민감한 문제이다. 어떤 시기에 어떤 목적으로 누가 앞장서서 통일을 추진하는지에 따라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p>	
3. 통일교육에 대한 의견	
<p>얼마 전 한 아이돌 걸그룹의 잘못된 역사 발언으로 인해 공인의 역사의식 수준에 대한 파문이 일었던 적이 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역사 상식을 모르느냐며 여러 누리꾼들이 비판하기 일쑤였고 이에 한국인의 역사 의식 수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신문 기사에서 한국인의 역사의식 수준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보았는데 학생들도 제대로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결과가 있었다. 이와 같이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 중 역사를 자세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며 통일에 대해 서도 그닥 관심을 갖지 않는 게 사실이다. 특히 교과 과목 위주의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역사의식보다는 한국사를 암기과목 중 하나로 여기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역사와 통일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통일은 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통일 교육은 정확하고 숨김없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 교육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역사교과서가 국정화된 판국에 통일 교육마저 정부의 관점으로 가르치게 된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기에 통일 교육을 시작하는 주체와 시점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통일 교육은 통일을 찬성하는 경향이 있겠지만 반대하는 입장 또한 존중하여 교육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잘못하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한 교육이 통일을 ‘세뇌’ 시키는 일종의 합리화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p>	



2016년 5월 27일(금)	2 학년 3 반 36 번 이름 : 이예준
1. 주제 발표 내용 정리	
<p>간단한 학술대회 소개 이후, 1섹션의 첫출발을 끊은 홍익대 김명수 교수님의 “국가보훈제도에 대한 헌법적 고찰” 은 나에게 그날 있었던 발표들 중 가장 강한 인상을 남겨 주었다. 학술대회 시작 전부터 신목고등학교 학생들을 많이 신경써주시던 김명수 교수님은 청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목고등학교 학생들을 배려해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 법적인 내용들을 보다 쉬운 비유를 들어 설명해주셨다. 국가보훈제도의 의미와 사회계약설을 주장한 홉스, 로크, 루소에 대한 언급을 통해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에 관한 설명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가보훈제도의 의의와 그 헌법적 근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학생들에게 차례로 알려 주셨다. 이어서 학생들의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보훈대상에 관한 설명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질문이 국가유공자를 단계별로 나누자는 의견에 대한 비판이었고, 김명수 교수님의 발표 내용도 그러하였다. 또한 김명수 교수님은 국가보훈제도가 제대로 잡혀 있어야 국가를 이루는 사람들이 애국심을 가지고 국가를 보호할 수 있기에 국가는 빚을 내서라도 보훈제도에 신경 써야 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셨다.</p>	
2. 통일과 공공성	
<p>통일과 공공성에 관한 내용은 1섹션보다 2섹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섹션에서는 주로 역사적인 내용을 토대로 보훈에 관한 내용을 이끌어내었다. 한국 독립 운동, 그리고 용어에 대한 많은 논란을 낳은 한국 전쟁, 4.19 시민혁명, 5.18 민주화 운동, 이 네 가지 다양한 사건을 바탕으로 저마다의 결론을 낸 듯하지만, 공통적으로 민주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기초를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다. 약간 이 주제에서 벗어난, 새터민에 대한 이야기를 신목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꼭 해 주고 싶다는 교수님도 계셨고, 또, 자신의 정치색이 들어간 조금 위험한 발언도 있었으나, 이들 또한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p>	
3. 통일교육에 대한 의견	
<p>나는 남한과 북한이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통일 교육이 현재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통일 교육이 부족하다는 것은 남북통일이 꼭 필요하지 않다는 사람들이 속속들이 생겨난다는 것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실제 내가 지금까지 필수 교육 과정을 이수하며 받은 통일 교육이란, 통일 포스터 만들기과 시끌벅적한 교실 속에서 희미하게 들리던 통일 관련 내용이 전부이다.</p> <p>우리나라는 통일시 선진국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국가 크기를 얻을 수 있다. 또, 북한에는 많은 자원과 이산가족 또한 존재한다. 남과 북의 경제수준 차이로 인해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느냐는 의견들은 일 교육의 부족이 낳은 성급한 생각이다. 물론 남과 북의 차이가 커, 당장 통일을 하면 적지 않은 충격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잠깐 닥쳐올 충격보다 이후 우리나라가 가지게 될 이익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p> <p>이러한 생각을 갖기 위해선 학교에서 통일 교육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통일 교육을 시행해 민주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나는 간절히 바란다.</p>	



2016년 5월 27일(금) 2학년 1반 17번 이름 : 강성모
1. 주제 발표 내용 정리
<p>첫 번째 섹션은 국가보훈제도에 대한 헌법적 고찰을 주제로 교수님들의 발표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섹션을 정리하자면, 보훈이 제대로 시행되어야 훗날 국가 위기 상황에서 발 벗고 나설 사람이 나오고, 그 전에 나라를 위해 힘써 주신 분들의 넋을 제대로 기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외국과 비교하며 우리나라의 국민적 자부심과 호국외지는 대체로 높은 편이라고 말씀하셨다.</p> <p>두 번째 섹션은 독립운동, 6.25, 4.19, 5.18의 정신과 그 의미를 분석하는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는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였고 우리는 그 정신을 이어받으며, 가꾸어 나가고 널리 퍼뜨려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4.19시민혁명과 보훈에 대해 발표하신 안성호 교수님께서 4.19의 희생정신을 북한과 세계에도 널리 퍼뜨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다.</p>
2. 통일과 공공성
<p>통일이 갑작스럽게 되든, 천천히 되든 2000만을 훌쩍 넘는 인구가 유입된다면 것은 잘못하면 공공성을 유지하기 매우 힘들어 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전에 공공성을 선진적으로 증진시키고 대비를 해놓는다면 쉽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남북의 경제력 차이로 인한 갈등 또한 공공성 유지의 매우 힘든 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도 경제나 복지와 관련된 부분을 잘 정비해놓은 상태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p> <p>이러한 문제들은 비단 가시적인 문제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공공적인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가진 북한인이나 인식을 보다 긍정적으로 바꾼다면 이후에 생길 사회의 암묵적인 갈등을 미리 줄일 수 있다. 어떤 경우에서든 통일에 관해선 공공성이 강조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과 공공성은 불상리(不相離)한 관계라고 정의 할 수 있다.</p>
3. 통일교육에 대한 의견
<p>당연히 통일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통일 뒤의 이점뿐만 아니라 지금 남북이 처한 현실을 위주로 교육이 되었으면 한다. 이미 근현대를 넘어서도 분단이 되었으면 한나라의 통일이나 신라의 통일을 본보기로 삼을 수는 없다. 그래서 유일하게 본보기로 삼는 것이 독일의 통일이다. 중학교 때 토론 대회 때문에 독일의 통일 전 상황과 우리나라의 상황을 비교한 자료를 본적 있는데 생각보다 매우 충격적이었다. 독일의 경우 서독의 지원과 동독의 노력으로 GDP차이가 3배 밖에 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40배가 넘게 차이가 난다. 아마 GNP를 비교한다면 더 큰 차이가 날 것이다. 이렇게 큰 경제적 격차를 줄이지 않고선 인식에 대한 교육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막상 통일이 되면 모두 소용 없어질 것이다. 몇 주 전 신문기사에서는 한 영국 경제 기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통일 시 약 1100조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공공부채와 가계부채는 각각 1000조원을 넘긴 상태에서 통일이 되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것이다. 어쩌면 세계에서 빛이 제일 많은 일본을 그대로 따라갈 수도 있다. 보통 사람들은 ‘통일이 되면 그 순간은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나아질 것이다.’ 라는 말을 한다. 과연 저러한 상황에서 더 나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래서 통일에 대한 교육이 뒤의 이야기가 아닌 지금 처한 현실에 더 치중했으면 좋겠다.</p>



2016년 5월 27일(금)

2학년 1반 1번 이름 : 김민영

1. 주제 발표 내용 정리

- 1섹션] 1. 국가보훈제도에 대한 헌법적 고찰
 2. 주요 OECD국가들의 보훈선양의식 분석
 3. 국가 안보위협 상황에서의 국민의 정신건강
- 2섹션] 1. 한국독립운동과 보훈
 2. 한국전쟁관련 국가보훈실태연구
 3. 4·19 시민혁명과 보훈
 4. '5·18정신'의 의미 확장 실천의 재구성

2. 통일과 공공성

통일에 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저는 통일이란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에 수반되는 부정적 결과들에 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북한과 남한은 같은 뿌리에서 나와 갈라진 다른 가지이므로 '완전히 갈라선다'라는 결론이 나와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비록 분단되어 있던 시간은 길지만 남과 북은 교류를 단절하지 않았고 서로에게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시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남과 북의 완전한 분리는 앞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을거라 예상합니다. 그러므로 남과 북의 통일은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이며 이제 우리는 북한과의 전쟁보다는 화합에 관하여 생각해야 할 때라고 일컫어지는 바입니다. 이 때 그에 따라 제기되는 문제점은 우선 근본적으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보훈제도를 더욱 정교하게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6.25전쟁 때만 해도 수 많은 희생자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에 합당한 보상이나 대우를 찾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생기는 만큼 국가보훈제도의 확충으로 국민들의 애국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국민들이 현재 북한의 핵 도발과 같은 행동으로 인해 생긴 북한에 관한 반감과 두려움이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는 이를 위해 국민의 정신건강을 관리 할 수 있는 재난심리 지원 프로그램과 같은 제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의 만족스럽지 못한 국민 자부심을 향상시킬 방안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통일이 이루어질시 북한과 남한의 극심한 문화차이를 극복할 방안에 관한 검토 역시 이루어져야합니다. 오랜 시간의 분단이 이루어졌던 만큼 서로의 문화적 차이는 고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가벼운 사항이 아닙니다. 국가는 국민들에 의해 지속이 되는 만큼 그 안에서 국민들의 화합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해야한다.


3. 통일교육에 대한 의견

현재 대한민국 중고생들에게 실행되고 있는 통일교육은 너무 광범위하며 학생들에게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그다지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들은 통일교육 중 통일을 위해 현재 학생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든지 국가에서 통일을 위해 행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교육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4·19정신(1명을 위한 사회에 대항하기 위해 일어난 정신)과 5·18정신(바람직하지 않은 국가에서 국민들이 그것에 대항하기 위해 나타난 정신)을 북한에 전파함으로써 평화적 통일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두루뭉술한 통일교육대신 보다 본질적이고 학생들이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시사해주는 통일 교육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에 따라 현재의 통일교육은 개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5 원 코리아 DMZ 체험활동

	주요 내용
프로그램명	원 코리아 체험활동 :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기원하며, 분단된 조국의 념을 수 없는 금지선으로의 여행
일시(기간)	2016.10.8.(토) 08:00~12:00
장소	경기도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
인원	28명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으로 분단된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염원의 메시지 전달 • 체험활동을 통해 통일에 관심 제고
특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무료 체험(학교 단체 버스 이용) • 체험활동 가이드 있음

 **Tips** 운영상 고려할 사항

1. 동행 교사는 최소 2명이 필요하다. 주말이어서 체험활동이 예약되어 있었지만 학생들이 일반인들과 섞여 인솔에 유의해야 했다.
2. 체험활동 안내 자료, 남북한 언어 비교 자료와 시험지를 준비해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간단히 시험을 치르고 학생들에게 상품을 지급했다. 의외로 학생들이 안내 자료를 진지하고 꼼꼼하게 읽으며 시험에 임했다.





1) 2016 북한말 남한말 비교 자료

북한말	남한말	북한말	남한말	북한말	남한말
살까기	다이어트	입다툼	말다툼	땡기운동	리본체조
꼬부랑국수	라면	직장세대	맞벌이 세대	료리차림표	메뉴
하루살이 양말	스타킹	글장님	문맹자	물고뿌	물잔
코코아 탄산 단물	콜라	색동다리	무지개	누운혜염	배영
모서리주기	왕따	아래줄	밑줄	단얼음	빙수
균강그리 죽이기	멸균	찢게	반찬	사이치기	새치기
송아지동무	소꿉친구	소리막이벽	방음벽	전기여닫개	스위치
첨단기술봉사소	PC방	멜가방	배낭	녀학생	여학생
망시민	네티즌	바드민톤	배드민턴	모터찌클	오토바이
머리비누	샴푸	내민총대	베란다	슬픔증	우울증
안내강사	가이드	동근달	보름달	식의주	의식주
닭알	달걀	따숨성	보온성	나들표	입장료
찬국수	냉면	젓기배	보트	먼바다고기배	원양어선
소젓	우유	원주필	볼펜	들어온말	외래어
튀긴고기떡	어묵	날래	빨리	자신심	자신감
로동개미	일개미	죽는률	사망률	전기발가마	전기밥솥
나리웃	원피스	빨래집	세탁소	공민증	주민등록증
애기차	유모차	들모임	소풍	빨혜염	자유형
그림영화	만화영화	녀성고음	소프라노	땅속건능굴길	지하도
기름밥	볶음밥	살눈섭	속눈썹	과일단물	주스
닭공장	양계장	혜염옷	수영복	발디디개	페달
가락지빵	도넛츠	배움나들이	수학여행	문화어	표준어
가무이야기	뮤지컬	양복치마	스커트	지짐판	프라이팬
선전화	포스터	비행안내원	스튜어디스	팔목걸이	팔찌
창가림	커튼	꼴신	슬리퍼	11미터차기	페널티킥
단졸임	잼	중선생	승려	직승비행기	헬리콥터
다층살림집	아파트	방안신	실내화	위생종이	화장지
목수건	목도리	가시대	싱크대	머리받기	헤딩
거님길	산책로	부스럭돈	잔돈	위생실	화장실
밥상칼	ナイ프	다리매	각선미	날거리	날씨
손기척	노크	뼈부러지기	골절	곽밥	도시락
발바리차	소형택시	귀에고리	귀고리	화학빨래	드라이크리닝
사슬돈	잔돈	꼴차	견인차	라지오	라디오
푸른차	녹차	덧머리	가발	땡기	리본
바다물미역	해수욕	꼴인	꼴인	날맥주	생맥주
노래이야기	오페라	휴식날	공휴일	차마당	주차장
가두녀성	가정주부	랭동고	냉장고	얼음보숭이	아이스크림
얼굴가리개	마스크	눈썹먹	마스카라	형겉신	운동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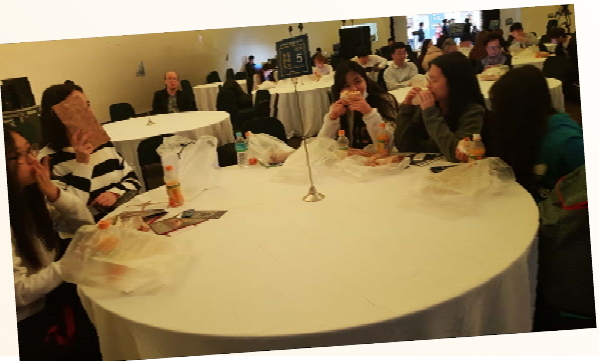
2) 원 코리아 체험활동 참가 보고서

2016년 5월 27일(금)		1 학년 11 반 26 번 이름 : 이지영
	체험활동 참가 전	체험활동 참가 후
1. 인상 깊었던 장소	<p>먼저, 제일 인상 깊었던 장소는 제 3땅굴이었다. 북한에서 김일성의 명령으로 기습전을 감행할 수 있도록 만든 땅굴이다. 직접 들어가 볼 수 있다는 게 신기했고, 이 땅굴이 만들어지는 동안 희생당하신 분들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p> <p>두 번째로 도라 전망대인데, 이곳에 올라서면 바로 건너편에 북한의 모습이 보인다. 날씨가 좋아서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육안으로도 볼 수 있었다. 개성공단, 개성시도 보고 인민기와 태극기가 걸려있는 모습도 봤다. 겨우 몇km도 안 되는 거리에서 바라만 봐야 하는 분단현실의 슬픔을 몸소 느꼈다.</p>	
2. 북한에 대한 나의 생각	<p>북한의 변질된 공산주의, 지금까지 있었던 북한의 도발 등의 이유로 북한을 나쁘게만 보았었다.</p>	<p>이 활동을 통해 실제 북한주민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 미워하지만 말고, 과거에 함께 살아갔었던 한 민족이라고 생각해야겠다고 다짐했다.</p>
3. 통일에 대한 나의 생각	<p>통일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그저 막연하게만 생각했다.</p>	<p>직접 북한 땅을 보고나니 한 민족을 바로 앞에 두고도 만날 수 없는 사실이 진정으로 슬프게 느껴졌고, 통일이 남북한의 제일 크고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p>



6 통일문화주간 영화관람 및 감독과의 대화

	주요 내용
프로그램명	통일문화주간 영화관람 및 감독과의 대화
일시(기간)	2016. 10. 21. (금) 19:00~ 21:17
장소	세빛섬 플로팅아일랜드 컨벤션 홀
인원	41명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적 접근을 통해 통일 미래의 긍정적 비전과 공감대를 확산 • 통일을 준비하고 내일의 통일을 기대하는 마음 확산 • 학교생활기록부에 참가 내용 기록
특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비 무료(김밥, 샌드위치, 음료 제공) • 학교에서 버스로 출발 및 도착 • 학교생활기록부에 참가 내용 기록
주관	통일부 통일교육원





1) 통일문화주간 영화관람 및 감독과의 대화 참가 소감문

2 학년 5 반 23 번 이름 민소영	
소감문	
<p>1. 감독과의 대화 평론가와의 대화</p>	<p>영화 상영이 끝나고 마련된 시간인 ‘감독과의 대화’ 는 통일 영화 ‘소년, 소녀를 만나다’ 의 감독님인 장은연 감독님께 질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감독님이 이 영화를 만드시기 된 계기와 감독님께서 이 영화로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고 싶었던 분단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다. 나는 장은연 감독님의 말씀을 들으며 ‘펜은 총보다 강하다’ 는 말이 떠올랐다. 장은연 감독님은 총을 들고 폭력적이고 희생이 필요한 방법을 쓰는 대신 펜을 들고 시나리오를 써 그 시나리오를 영화로 제작하여 통일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했다. 펜으로부터 시작된 그 효과는 총을 이용한 폭력적인 방법보다 더 강렬했다. 감독님 말씀처럼, 우리는 평범한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이라 분단으로 헤어지게 된 가족이 없어서 통일이라는 주제를 깊게 생각해 볼 기회도 없고, 분단의 아픔을 체험할 일도 없었다. 하지만 이 영화를 통해 간접적으로라도 체험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값진 경험이었다.</p>
<p>2. 통일영화 ‘소년,소녀를 만나다’</p>	<p>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총소리,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영화이다. 평화로운 바다에서 뛰어노는 남한 소년과 북한 소녀는 이 영화가 왜 통일 영화인지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영화가 결말을 향해 갈수록 소녀의 탈북한 아버지로 인한 소녀의 아픔과 분단이라는 이름아래 헤어질 수 밖에 없는 소년과 소녀의 애뜻함이 총소리가 난무하는 전쟁 영화보다도 더 강렬하게 통일의 메시지를 주었다. 그동안 통일과 분단을 다룬 영화를 몇 편 봤었지만 이 영화는 그동안의 영화와는 완전히 달랐다. 대부분의 통일 영화처럼 분단의 아픔을 전쟁으로 인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처럼 비극적인 전개가 아니라 잔잔하게 분단의 아픔을 느끼고 통일의 필요성을 생각해볼 수 있었던 영화였다.</p>
<p>3. 통일영화 ‘러브레파’</p>	<p>한 시간도 되지 않는 이 영화는 주된 사건이 없이 흘러간다. 한 젊은 병사가 부인으로부터 온 편지를 받고 하루하루 힘든 전쟁에서의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이 영화의 주요 사건이다. 처음엔 이것에 대해 별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50년후의 부인이 미래에서 한글을 배워 전쟁통에 죽은 남편을 그리워하며 쓴 시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편지’ 라는 평범한 소재를 이렇게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매개체로 쓴 이 영화의 감독의 상상력에 감탄했다. 영화의 주인공인 할머니가 죽은 남편에게 쓴 편지를 낭독하는 장면에서는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는 모습이 떠올라 눈물이 핑 돌았다. 이 영화야말로 분단의 아픔을 제대로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다.</p>



2학년 3반 37번 이름 정다현	
소감문	
1. 감독과의 대화 평론가와의 대화	<p>우리는 두 번째로 봤던 영화 ‘소년, 소녀를 만나다’ 의 장은연 감독님과 대화를 했다. 영화를 보며 어린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설정해 이념에서 벗어나 순수한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한 것이 기억이 남았는데, 감독님께서서는 통일과 영화가 닮은 점이 많아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고 하셨다. 또한 이 영화를 통해 관객들로 하여금 세월의 고통을 느끼게 하고, 통일에 대처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은 잊혀진 역사가 아님을 역설하고 싶으셨던 것 같다. 감독님은 영화 ‘백투더 퓨처’ 가 현실이 되었 듯 남북한 홈스테이도 개최되기를 소망하셨고, 나도 이러한 공감과 소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p>
2. 통일영화 ‘소년, 소녀를 만나다’	<p>영화 ‘소년, 소녀를 만나다’ 는 2020년에 통일 준비를 위해 남북한 청소년들이 홈스테이를 하는 내용이었다. 북한에서 남한의 문화를 느끼러 홈스테이 체험을 온 여주인공 하진이와 섬에 사는 우영이의 첫사랑 이야기였다. 가장 인상깊었던 장면은 하진이가 탈북 했던 아버지가 남한에서 새 가정을 꾸린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는 장면을 보며 나도 마음이 아팠다. 이 장면을 통해 분단이라는 현실이 당사자들에게 얼마나 상처가 될까 생각해보며 그들의 아픔을 잠시나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요원하게만 느껴졌던 주제인 통일을 어린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삼아 그려내니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난 순수한 시각으로 볼 수 있었다. 또한 거리감이 느껴졌던 한 민족의 분단이라는 현실을 아이들의 풋사랑으로 표현해 관객들에게 감정적으로 잘 전달되었다 생각했다.</p>
3. 통일영화 ‘러브레파’	<p>이 영화는 6.25 전쟁 때 남편을 잃고 글을 쓸 줄 몰랐던 할머니의 스토리였다. 영화 초반부에 할머니가 글을 배우시고 공부하시는 장면이 있었다. 그리고 할머니는 남편을 잃고 50년이 지난 후에야 전쟁에 나간 남편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50년이 지난 편지가 50년 전 전쟁터에 나간 남편에게 전달되는 판타지 영화 기법이 가장 좋았다. 처음에 어? 하고 궁금증을 가지고 보았지만 세월이 지나도 남편을 잊지 않고 편지를 쓰시는 할머니를 보며, 50년간 혼자 살아온 그녀의 아픔과 그리움, 또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전쟁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전쟁은 절대로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p>



1학년 7반 6번 이름 김정은	
소감문	
1. 감독과의 대화 평론가와의 대화	<p>영화감독이 되고 싶은 나에게 감독이 영화를 만들게 된 의도를 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기뻐다. 비록 장은연 감독님께 질문을 하지는 못했지만 어떻게 해서 시나리오를 쓰게 되었는지, 영화를 통해서 전하고 싶었던 주제가 무엇인지 등을 알게 되어 좋았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얘기는 감독님이 예전에 이산가족 영상편지를 제작했는데 한 할머니께서 이름만 읽으시고 편지를 읽지 못한 부분에서 강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신 이야기였는데, 이산가족의 아픔이 얼마나 큰 지 알게 되었고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느꼈다. 지금까지는 영화를 보고 내가 느낀 대로만 받아들이기만 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영화를 만든 사람의 의도를 알 수 있어서 새로웠다.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통일’이라는 우리가 꼭 해결해야 할 주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었고, 내 생각도 정리해볼 수 있어서 뜻깊었다.</p>
2. 통일영화 ‘소년, 소녀를 만나다’	<p>이 영화는 장은연 감독님이 7~8년 전에 홈스테이를 하면서 일어난 일을 그린 첫사랑 성장 영화 시나리오를 쓴 것을 다시 고쳐서 최근에 만든 영화라고 한다. 영화의 배경은 2020년인데, 감독님은 점진적으로 남북한 청소년의 문화 교류를 할 과도기적 시간일 것 같아서 그렇게 설정했다고 한다. 영화를 봤을 때 남북 청소년의 홈스테이라는 소재 자체가 신선했고, 그들 사이의 첫사랑이 아름답게 그려져서 좋았다. 중간에 재미있는 장면도 들어가서 보는데 즐거웠고, 홈스테이가 끝날 때 하진이가 우영이에게 자신의 집주소를 적어주고 어른이 된 후에 기차를 타고 우영이 북한에서 하진을 만나는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다. 통일이 당장 되어도 북한을 갈 순 없겠지만 얼른 통일이 되어 북한을 방문할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느꼈다.</p>
3. 통일영화 ‘러브레파’	<p>이 영화를 보고 나서 6.25 전쟁이 아직까지도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깊게 느꼈다. 이 영화는 6.25 전쟁에 참전한 남편의 생사도 모른 채 아들을 키운 할머니가 한글을 배워서 쓴 편지가 한국 전쟁 당시의 남편에게 간다는 것이 소재였는데, 처음 한 줄이 서원석 일병에게 전해지고 그다음에는 두 줄이 전해지고 마지막에 편지 내용 전체가 전해졌다. 편지의 내용에서 강옥자 할머니가 서원석 일병을 매우 그리워하는 느낌이 매우 실감 나서 울기까지 했다. 말로만 듣고, 글로만 읽은 분단의 아픔을 영상으로 보고 나니 이산가족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었고, 분단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깨달았다. 이 영화를 계기로 통일을 위해 내가 더 많은 노력을 하여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고 결심했다.</p>



2학년 6반 3번 이름 김진호	
소감문	
1. 감독과의 대화 평론가와의 대화	<p>장은연 감독님과과의 대화에서 소수의 몇 명이 용기를 내어 질문을 했다. 본인도 2가지의 질문을 했다. 우선 처음으로 했던 질문은 “영화에서 남북 청소년 교류 연도를 2020년으로 설정한 것은 2020년도에 통일이 되기를 소망하셔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메시지를 담으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다. 다음으로 했던 질문은 “만약 이 영화가 북한에서 상영하게 된다면 어떤 파급효과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이었다. 나의 질문 장면은 내부 카메라를 통해 전 참석자들에게 중계되어 살짝 당황했지만 잘 질문을 마쳤다. 장은연 감독님께서 2020년에 통일이 되면 좋으시겠다고 하셨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 영화가 북한에서도 상영되기를 바란다고 하시면서 북한 주민들이 보게 되면 감동적이며 통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셨다. 이런 감독님과과의 대화를 통해 통일영화를 어떻게 받아들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고 통일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들도 가늠할 수 있는 자리였다. 또한 통일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p>
2. 통일영화 '소년,소녀를 만나다'	<p>통일영화 ‘소년, 소녀를 만나다’ 는 도라산역을 통해 남북 청소년 교류단의 북한 대표단이 내려와 남한의 가정집에서 홈스테이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북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리며 조화를 이루는 모습은 마치 통일 후 남북이 통합을 이루는 모습을 형상화하는 것 같았다. 우영(엄지성)과 하진(박사랑)은 아이들의 순수한 면들을 보여주면서 남북의 청소년들의 교류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통일시대를 열어가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중간에 북에서 온 하진(박사랑)의 부친이 탈북자인데 우영(엄지성)과 함께 부친을 찾아 상경하는 모습은 탈북자들의 처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탈북자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이 영화가 수상까지 받고 개봉까지 했었는데 더욱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p>
3. 통일영화 '러브레파'	<p>통일영화 ‘러브레파’ 는 관객들로 하여금 이산가족의 아픔을 보여주고 그에 따른 통일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부분이 강한 영화이다. 관객들의 감수성도 자극하는 이 영화에서 주인공은 6.25전쟁 때 참전한 남편과 헤어진 할머니가 다니는 노인학교에서 대화를 하자 작품 출품을 하기 위해 편지를 쓴다. 전쟁 중에 글을 몰라 짧은 문장으로만 쓰여진 러브레파를 보내는데 그 장면들을 통해 6.25전쟁의 아픔과 이산가족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영화였다.</p>



2 학년 5 반 6 번 이름 강주은	
소감문	
1. 감독과의 대화 평론가와의 대화	<p>영화를 찍은 감독과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한다. ‘소년, 소녀를 만나다’ 를 연출하신 감독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우리가 염원하는 통일을 소재로 사용하신 것은 도전이라고 생각했다. 보통 시나리오를 쓰시는 감독님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많이들 붙여나간다고 하시는데 경험해보지 못한 소재를 아름답게 풀어 나갔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p>
2. 통일영화 ‘소년,소녀를 만나다’	<p>남한의 소년과 북한의 소녀가 나온다는 것부터 매우 신선했다. 미래를 소재로 우리가 통일에 가까워진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소년, 소녀의 풋풋한 모습 뿐 만 아니라 탈북한 가족을 만나고 결국 통일이 되어 소년 소녀도 다시 만나게 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영화 속 주인공들은 비록 어린아이들이었지만 그들 속에서 우리가 통일이라는 개념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다. 우리는 이런 소재의 대중매체를 접하면서 통일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가지게 되어서 영화 속 소녀처럼 가족을 잃은 아픔이 없었으면 좋겠다.</p>
3. 통일영화 ‘러브레파’	<p>‘러브레파’ 라는 영화는 단편이지만 매우 큰 감동을 주었다. 전쟁과정 중에서 미래에서 편지가 오는 것이다. 분단되어 있는 나라로써 전쟁이 일어나 슬픈 것도 있지만 이 영화에서 가장 슬픈 것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기약도 없이 떨어져 있으면서 그리워해야 한다는 것이다. 할머니는 전쟁으로 남편을 잃고 혼자 자식을 훌륭히 키워 늙은 뒤 한글을 배우게 되어 오랫동안 지녀왔던 그리운 사랑하는 남편에 대한 마음을 드러내게 된다. 전쟁을 하러 나가는 뒷모습이 남편의 마지막 모습 이였기에 더 안타깝고 그리운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시는 모습을 보니 통일이 라는 것에 중요성을 더 깨닫게 된 것 같다. 이 모든 아픔이 다 사라지기를 바란다는 의미의 영화라고 생각한다.</p>



1 학년 7 반 17 번 이름 박서윤	
소감문	
1. 감독과의 대화 평론가와의 대화	<p>‘소년, 소녀를 만나다’ 의 장은연 감독님과과의 만남은 재미있었다. 감독님이 영화 시나리오를 쓰게 된 계기와 영화의 배경을 설정한 이유도 매우 인상깊었다. 감독님은 통일이 좀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도록 첫사랑이라는 소재를 더하셨다고 한다. 그리고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이 한 집에서 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쓰셨다고 한다. 사실 통일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지는 않았는데, 이번 경험을 계기로 남북 통일이 좀 더 친근하게 다가 왔고 통일에 대해 더욱 깊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p>
2. 통일영화 ‘소년,소녀를 만나다’	<p>‘소년, 소녀를 만나다’ 영화는 일반적으로 생각 했던 통일 영화와는 달리 밝고 상쾌했다. 항상 통일 하면 분단된 가족들의 애틋하고 슬픈 느낌이 떠올랐는데, 통일이라는 소재에다가 어린 시절의 첫사랑이라는 소재를 더하니깐 통일이라는 의미가 더욱 서슴없고 가깝게 느껴졌다. 또 감독님이 영화 속에서 제시한 남북한의 홈스테이라는 것을 통해서 꼭 금전적인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소소한 방법을 통해 남북이 가까워 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엔딩 장면에서 미래에 통일이 돼서 어릴 적 첫 사랑을 다시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보고 ‘빨리 통일이 돼서 원래의 우리 한민족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다.</p>
3. 통일영화 ‘러브레파’	<p>영화 ‘러브레파’ 를 보고 난 후 마음 속에 여운이 깊게 남았다. 남북 전쟁으로 인해 갈라진 부부의 심정을 편지로 표현한 것이 매우 인상깊었다. 영화 속 할머니가 몇 십년이 지나서도 헤어진 남편을 잊지 못하고 글을 배워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편지로 남긴 것을 보고 난 후 애잔함을 느꼈다. 분단으로 인해 많은 가족들이 헤어지고 아직까지 다시 못 만난 분들이 많은데, 나이가 들어서 헤어진 가족을 다시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p>



1 학년 12 반 13 번 이름 박다운	
소감문	
1. 감독과의 대화 평론가와의 대화	<p>성장 영화를 좋아하셨던 장은영 감독님은 7-8년 전 남북한 아이들의 홈스테이에 관한 시나리오를 쓰셨었다. 장은영 감독님은 이산가족 할머니께서 직접 쓴 편지를 읽는 한 영상을 보며 통일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셨다고 했다. 나 역시 장은영 감독님의 영화를 보면서 통일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다. 덕분에, 내가 평소에는 그다지 의식하고 지내지 않았던 통일의 필요성이 가슴 깊이 들어오게 되었다.</p>
2. 통일영화 '소년,소녀를 만나다'	<p>소년, 소녀를 만나다' 는 미래에 남북한이 교류하며 아이들이 서로의 집에 홈스테이를 하러 오는 내용이다. 주인공인 우영이는 남한에 사는 남자아이로, 갑자기 자신의 집에 지내게 된 북한 여자아이 하진이가 못마땅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영이는 하진이에 대해 알아가게 되고, 결국 좋아하게 되었다. 하진이는 탈북한 아버지를 찾으러 서울로 떠나고 우영이는 하진이를 따라가게 된다. 긴 여행 동안 고생도 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두 아이는 가까워진다. 하지만 하진이는 아버지를 만나서 말 한 마디 걸지 못하고, 결국 북한으로 돌아가야 할 날이 온다. 하진이가 타고 떠나는 배를 우영이가 쫓아가며 하진이를 부르는 모습에 나는 마음이 아파 눈물을 쏟았다. 다행히도, 앞으로 둘이 만나는 일은 없을 거라는 내 예상과는 다르게 성인이 되어 북한에 찾아가는 우영이에 의해 둘은 다시 만나게 된다.</p>
3. 통일영화 '러브레파'	<p>'러브레파' 는 글 쓰는 법을 막 배우기 시작한 할머니가 50년 전의 남편에게 편지를 써 보내는 내용이다. 아마 남편은 6.25 전쟁 당시에 전사했는지, 혹은 분단이 되는 통에 반평생을 엇갈리게 되었는지, 오랜 시간 동안 혼자 살아 온 할머니는 자신의 속마음을 편지에 눌러 담는다. 이 단편 영화에는 그 편지가 기적처럼 과거의 남편에게 닿는, 조금은 비현실적인 요소가 담겨 있다. 할머니는 그 편지로 글짓기 대회에서 상을 받고, 자신이 쓴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그 장면은 아마도 모든 관객들의 가슴이 멍멍해졌던 장면일 것이다. 나 역시 할머니가 그간 느꼈을 그리움을 느끼며 마음이 아렸다.</p>



7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한 1일 통일 특강

		주요 내용
일시	5.10.(화) 15:00~15:50(7교시)	5.23.(월) 15:00~15:50(7교시)
장소	2-11(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2-10(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인원	2-11 전체	2-10 전체
강사	이덕행(통일정책실 통일정책협력관)	홍양호(전 통일부 차관, 전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위원장)



Tips 운영상 고려할 사항

1. 연초 계획에 의해 실시한 것이 아니라 통일 교육원에서 연락이 와서 실시하게 되었다. 갑자기 교육 대상과 시간을 정하여 실시하였다.
2.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을 활용할 수 있었다. 2학년 자연계열 학급이었지만 통일에 관심을 갖고 경청하는 듯했다.





V. 운영 결과 및 시사점

1 운영 실태 조사

통일교육 연구학교 운영 과제를 실행하기 전과 실행 후 운영의 근본적인 목적인 중점 지도요소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검증하고, 본교에서 실시한 각종 통일교육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통일의지 함양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를 1,2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는 전문 조사기관에서 분석한다.

과 제	내용	도구	대상	시기
체험·창조·신뢰 중심 맞춤형 학교통일교육 수업모델 적용을 통한 한반도 평화통일 실현의식 함양	프로그램 적용 효과, 통일교육 자료 활용 효과, 연수 효과, 동아리 활동 효과, 교내 행사 평가, 체험활동 참여, 홈페이지 운영 등	설문, 자기평가, 게시판 등	학생, 교사	연중

2 연구학교 운영의 시사점

체험·창조·신뢰중심 맞춤형 학교통일교육 수업모델 적용을 통한 한반도 평화통일 실현의식 함양 노력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운영과제1의 운영 결과를 통하여

- 1) 통일교육추진위원회 구성, 업무분장, 게시판 설치 등을 통해 통일교육을 위한 환경을 구성하고 자연스럽게 통일 교육 환경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 2) 상설 통일교육 존(Zone)을 조성하여 한눈에 볼 수 있는 통일관련 자료와 작품들을 게시함으로써 통일 환경에 자연스럽게 접하도록 하였다.
- 3) on-off line 교사 연수, 학교설명회 통일교육 자료, 통일교육 컨설팅 등 학생, 교사 및 학부모에 대한 통일교육 연수와 교육을 통해 통일 문제에 대해 스스로 탐구하며 통일의를 내면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 4) 학교 홈페이지 통일 갤러리 메뉴에 공지사항과 사진들을 탑재함으로써 on-line 콘텐츠 구축에 기여하였다.
- 5) 학교홈페이지 통일 갤러리, 도서관 통일교육 코너, 상설 통일교육 존, 통일 게시판 등 통일교육을 위한 on-off line 콘텐츠 구축을 통해 다양한 통일교육 콘텐츠를 이용하며 통일 관련 의제 및 의견을 공유하며 평화통일실현의식을 함양하는 효과를 높였다.
- 6) 도서관 통일교육 코너를 마련함으로써 통일 감수성을 높였다.
- 7) 학급 및 복도 공간에 통일 게시판들을 조성함으로써 통일 콘텐츠 큐레이션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대화 소재를 제공하였다.



- 8) 교직원 하계 연수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기원하며, 분단된 조국의 넘을 수 없는 금지선으로의 여행’을 통해 북한을 바라보며 교직원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는 데 기여하였고 통일연구학교 운영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 9) 통일교육 컨설팅을 통해 학교통일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바탕을 마련하였다.
- 10) 통일염원 체육대회를 통해 통일송(one korea one dream)을 알게 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기여하였다.

운영과제2의 운영 결과물 통하여

- 1) 통일교육추진위원회 위원들을 통해 수업모델을 개발하고 통일을 주제로 한 교수학습지도안을 개발함으로써 교과 융합적 통일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기여할 것이다.
- 2) 국어, 수학, 영어, 물리, 역사, 사회, 중국어, 도서관 협력수업 등 다양한 교과와 통일 교육을 접목시킴으로써 통일 교육의 범주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였다.
- 3) 교사 학습 동아리를 통해 교사들이 통일 관련 도서를 읽고 토론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4) 학교통일교육을 위한 학생 동아리 ‘고조선’을 통해 동영상 시청 및 토론, 북한 및 통일 관련 영화 감상, 탈북 강사 특강, 다양한 통일 체험활동 참가, 북한음식탐방 등을 실시함으로써 통일교육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였다.

운영과제3의 운영 결과물 통하여

- 1) 통일 표어 대회, 원 코리아 갤러리(문예·사회과학·UCC·포스터 및 캐릭터·동영상감상평 등 5개 분야) 등 통일관련 각종 대회를 통해 자기주도적 통일 교육 활동을 지향하였다.
- 2) 상설 통일교육존(Zone)을 활용한 ‘포스트 잇 통일 한반도’를 게시함으로써 통일문제를 학생들의 관심사로 끌어들이었다. 일상생활에서 체험과 실천의 대상이 될 것이다.
- 3) 1박 2일 통일 리더 캠프에 참가하여 통일 체험, 통일 동영상 만들기, 동영상 감상, 통일벽화 그리기 등에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 통일의 주체와 리더임을 확인하는 경험이 되었다.
- 4) 공공성 증진과 통일교육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각 분야 전문가 및 교수들에게 통일 관련 질의 응답을 통해 깊이 있는 통일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기회가 되었다.
- 5) 원 코리아 DMZ 체험활동을 통해 남북한 언어에 대해 학습하고 제3땅굴 탐방, 통일 체험, 도라산 전망대 관람 등을 통해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실천 의지를 키웠다.
- 6) 통일문화주간 영화 관람을 통해 감동을 느꼈고 통일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감독과의 대화에서 질의 응답에도 참여하였고 참가 소감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평화통일의지를 확고히 하는데 기여하였다.
- 7)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1일 통일 특강을 통해 정치·경제·사회 등 다양한 시각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관심이 생겼다.



MEMO



MEMO writing area with horizontal dashed lines.



MEMO writing area with horizontal dashed lines.



MEMO



MEMO writing area with horizontal dashed lines.



MEMO writing area with horizontal dashed lines.



MEMO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ashed lines.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ashed lines.